

## 1230(금) 요한계시록 19-22장 새 하늘, 새 땅, 새 예루살렘

거대한 제국 <바벨론>이 결국 무너졌습니다(17-18장).

사탄을 내버려두시는 것은 아직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.

쓰임이 끝나면 그 또한 불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.

마침내 죽음과\* 음부까지\*\* 완전히 멸절될 것입니다.

\*20:7-15, 현실, 위력 \*\*죽은 자들의 거처

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과 승리는 무엇일까요?

세상의 멸망과 파괴가 끝이라면 주님의 패배입니다.

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.

최종 승리는 창조 세계가 영광스럽게 <재승인>되는 것입니다.

새 하늘과 새 땅으로, 만물을 전체가 갱신되는 것입니다.

그날이 되면, 성전/해/달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(21:1-5).

하나님의 임재가 땅에 충만히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.

하늘과 땅이 해체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입니다.

하늘과 땅이 완전하고 영원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.

반 창조, 반 생명, 죽음의 자리는 전혀 없고

하나님과 그분의 통치, 생명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.

<바벨론>은 사라지고 순결한 신부만 남게 될 것입니다.

새롭게 창조되는 세계의 중심부, 새 예루살렘으로부터

생명이 흘러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.

(21:6-22:5,겔38, 창2)

주님은 “내가 속히 오리라!”고 말씀하십니다(22:8-21).

주의 백성들은 하늘의 크고 비밀한 것을 본 자들로서,

이미 하늘 도성에 속한 자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.

순결한 신부/청지기/증인/새 창조의 동역자로서

말씀을 되새기며 성령으로 살아가야 합니다.

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며 살아갑니까?

❶ 이 땅의 삶이 끝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?

❷ 재림과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아갑니까?